

한국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이해

- '종교'에서 '한국종교'로, 그리고 '무속'으로 -

조 남 옥*

目 次

1. 서 론
2.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
3. '한국종교'의 원류 - 신교(神敎)
4. '무속'에 대한 이해
5. 결 론

1. 서 론

이능화는 수많은 저작을 통하여 한국의 종교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불교신자였던 이능화의 초기 저술은 불교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백교회통(百教會通)』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능화는 초기부터 다른 종교와의 비교 연구에도 관심을 가졌다. 물론 『백교회통』의 비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종교학적인 입장에서의 객관적 비교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한 일방적 배척이 아닌 다종교 상황의 인정¹⁾이라는 측면에서는 분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1) 이능화는 『백교회통』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작금의 세상에는 목격한 종교만도 수십 종을 헤아릴 정도가 되어 있으며 또 한국인이 만든 종교도 적지 않으니, 오래지 않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명히 진일보된 종교학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이러한 열린 자세는, 그 자신이 한국 종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스스로 연구의 범위와 연구에 사용되는 범주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동성을 제공하였다. 즉, 이능화는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스스로의 연구틀을 조정해 나갔던 것이다. 하나의 틀에 고정되어 자신의 연구를 거기에 모두 꿰어 맞추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에 따라서 또 그 때 그 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과 범주를 조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능화의 능동성은 연구 자료의 폭을 넓히고 주제를 다양하게 해 주는 장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난삽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능화의 연구를 접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독해가 요구된다. 단순히 이능화가 수집해 놓은 자료만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능화의 저작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된 흐름을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능화의 저작 중에서 특히 한국 신교(神敎),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이능화의 한국종교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각 저작들을 발표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그 속에서 이능화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은 일단 이능화의 저작만을 자료로 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추후에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이능화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백교회통』(1912),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1918), 『조선기독교금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1925), 『조선신사지(朝鮮神事誌)』(1929)²⁾,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1927), 『조선종교사(朝鮮宗敎史)』(1931년경),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手

의 교(敎)를 만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종교이며 또 어떤 것이 사된 종교라 할 수 있겠는가? (중략) 다만 다른 종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는 이렇노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능화, 『백교회통』, 강효중 옮김, 운주사, 1989, 6쪽.

2) 영인본에는 「조선신사지」가 1929년 『朝鮮』에 실려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신광철, 「이능화의 한국신교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회, 『종교학연구』 11권, 1992, 150쪽.

稿本, 1959년 동국대학교에서 영인).

2.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

서론에서도 밝힌 것처럼 '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초기 저작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 『조선불교계(朝鮮佛敎界)』,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 등, 초기에 이능화가 글을 실은 주요 잡지들의 면면을 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백교회통』을 중심으로 이 시기 이능화의 종교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교회통』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회통사상에 기반하고 있다.³⁾ 그리고 불교인인 이능화에 게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불교이다. 이 저작에서 이능화는 각각의 종교를 불교와 대조(對照)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주로 교리와 경전의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거론되고 있는 종교들이 굳이 '한국적' 상황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론되는 종교들은 다음과 같다. 도교(道敎), 귀신술수(鬼神術數)의 교, 신선교(神仙敎),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바라문교, 태극교(太極敎), 대종교(大宗敎), 대종교(大宗教, 一夫 金恒의 正易 계통), 천도교(天道敎).

이렇게 『백교회통』만을 놓고 보면, 이 당시의 이능화가 '한국'의 종교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다. 그 보다는 '종교' 일반에서 이능화 자신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모든 종교를 그 대상으로 하여 『백교회통』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종교 이하, 한국에서 형성된 종교가 거론되는 경우도 주로 그 교리와 의례 등만이 비교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백교회통』에서는 '한국종교'라는 범주보다는 '종교' 일반의 범주가 이능화의 주요 관심 사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종교'의 범주 속에 각 종교들을 위치시키는

3) "따지고 보면 원래 한 가지 등근 원이 나누어져서 백 가지의 길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것은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고 분별을 짓는다." 이능화, 『백교회통』, 6쪽.

단계가 빠져 있는 것이다. 『백교회통』의 저술 목적 자체도 '한국종교'라는 범주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러 종교들을 불교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저술에서는 '한국종교'라는 범주가 이능화의 구체적 관심사가 될 필요는 없었다.⁴⁾ '한국종교'라는 범주는 그 이후의 저작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3. '한국종교'의 원류 - 신교(神敎)

이능화에게 있어 '한국종교'라는 범주는 그 '한국종교'의 원류를 찾고자 하는 역사적 접근과 함께 간다. 이는 이능화를 비롯한 당시의 민족주의적 사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에는 한국만의 고유한 '한국종교'가 있었으며 그것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비록 변화되거나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속에 면면히 살아 있고, 따라서 그 '한국종교'를 다시 복원하고 되살림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일제의 침략기라는 사회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능화 역시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종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한국 고유의 종교는 무엇이였을까? 당시의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내어 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 고유의 종교를 단군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었다. 단군신화의 기록과 고대 왕국들의 여러 기록들을 연결시켜 '단군신교(檀君神敎)'를 상정하고 그것을 '한국종교'의 원류로 보는 것이다. 이능화도 우선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조선불교통사』의 하편에서 신교에 관한 이능화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⁵⁾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한국불교의 역사를 기술

4) 이것을 근거로 이 당시의 이능화가 '한국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시의 이능화 저작을 모두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백교회통』의 경우, '한국종교'라는 범주가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지적하도록 하자.

하고 있는데, 그 하편에 「朝鮮古代神教已行」이라는 절을 구성하여 신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수입되기 이전의 한국이 종교적 진공상태가 아니었으며,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가 실행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인식 범주 속에 '한국종교'라는 범주가 설정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백교회통』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일반 '종교' 범주에는 '신교'라는 범주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교'는 일반 '종교' 범주와는 거리가 있는,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범주이므로 이 '신교'를 수용한 것은 이능화 역시 그 특수한 맥락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백교회통』의 경우는 각 종교와 종교의 교리를 비교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단 각 종교의 교리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백교회통』에서 신교에 대한 언급⁶⁾을 하였다면, 그것은 단지 그것을 주장하는 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불교통사』는 조선 불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저술로, 한 종교의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능화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교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능화가 그만큼 신교에 역사적 가치를 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불교통사』에 등장하는 '신교'에 대한 설명은 이능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김교헌의 『신단실기(神檀實記)』(1914)에 실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⁷⁾ 이는 신교에 대한 이능화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면서도, 그 관심이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으로 아직 나아가지는 못 했음을 보여준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독자적인 해석은 '무속'과 연관된다. 신교의 유풕, 혹은 신교

5)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영인본), 경희출판사, 1968.

6) 『백교회통』에서 大宗教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교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대종교의 삼신(三神)과 불교의 삼신(三身)이 비교되고 있으며, 대종교와 불교 각각의 신의 활동이 비교되고 있을 뿐이다.

7) 절의 서두에 '大宗教書神檀實紀云'이라 하여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檀國檀君, 檀君世紀, 檀君疆域, 族統源流, 教化源流, 歷代祭天 등의 항목을 『신단실기』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의 내용으로서 무속을 제시함으로써 이능화는 자신의 독특한 신교 해석, 그리고 '한국종교'에 대한 해석을 완성하게 된다. 『조선불교통사』에는 이러한 이능화의 해석도 예견되고 있다. 「朝鮮古代神教已行」의 절 다음에 「巫女賽神扇舞三佛」, 「盲者逐鬼鼓誦千手」라는 절이 편성되어 당시의 무속에 관한 설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무속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능화의 신교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종교'라는 범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즉 신교에 대한 이해)는 특히 그 역사적 원류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것으로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능화는 '한국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고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 고찰과 역사적 고찰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능화는 무속과 연결된 자신의 '한국종교' 이해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식적 이해는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기독교급외교사』의 서언에서 이능화는 '한국종교'의 범주를 다섯으로 구분하고 있다[我朝鮮古今 宗教凡有五]. 신교,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가 그것이다.⁸⁾ 신교와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한국종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공식적 고찰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종교'의 원류를 찾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시의 종교 상황도 고려하여 '한국종교'의 범주를 총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이능화는 '한국종교'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조선기독교급외교사』의 서언에서 이능화는 신교에 풍류교와 무축이 포함된다[附風流教及巫祝]고 밝히고 있다.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자체는 기독교에 대한 저술이기 때문에 신교와 풍류교 및 무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능화의 '한국종교'라는 큰 범주 속에 소범주로 풍류교 및 무축이 설정되어 신교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그리고 무축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무속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8)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영인본), 학문각, 1968, 서언 1쪽.

9) 무축 외에 특히 도교와 관련이 있는 풍류교를 설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불교통사』하권에 「巫女賽神扇舞三佛」, 「盲者逐鬼鼓誦千手」 두 절이 편성되어 있음을 이미 말하였다. 이는 무녀와 맹자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됨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종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 그 원류를 신교에서 찾고자 하는 이능화의 노력은 「조선신사지」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신사지」는 모든 민족이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단군을 조선 민족의 신화로 파악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단군과 관련된 이 종교행위를 몽고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천배일(祭天拜日)과 무축(巫祝), 그리고 선도(仙道)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여기서는 신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단군이 고대 제천행사를 주관한 제사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¹¹⁾ 따라서 신교라는 역사적 추상물에 의지하기보다는 그 추상물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신사지」의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 신교에 대한 이와 같은 이능화의 변화된 이해가 과연 어디에 놓여야 할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종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신교에 대한 탐구가 그 신교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보는 것으로, 특히나 『조선기독교급의교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식적 고찰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찾아보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다. 이제 이능화가 ‘한국종교’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으로, 이 무녀와 맹자가 각각 무축과 도교에 연관이 된다. 즉 『조선도교사』에서 이능화는 단군신교가 도교의 원류가 되고 있음을 여러 문헌을 들어 예증하고 있는데, 특히 22장에서는 도교와 맹인의 관계를 언급하여 맹인들의 점복과 독경 행위 등이 도류의 그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이능화는 신교가 무속과 선교(도교, 풍류교)의 두 갈래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현재에는 각각 무녀(무속)와 맹자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古代以宇宙所有各表象으로 歸功於神之行爲하여 遂生種種傳說하니 謂之神話라 (중략) 則朝鮮壇君도 亦復如是而已로다 (중략) 我朝鮮人은 屬蒙古族하니 則北夷之分派爲東九夷者也. 而其古代에 接近蚩尤之巫祝, 黃帝之仙道, 匈奴之祭天拜日, 而化民成俗이라 壇君之蹟은 卽是祭天拜日而最近於巫祝하고 且合仙道, 則文化之所由來를 推想可知也라.” 이능화, 「조선신사지」(영인본), 『이능화전집(속집)』, 영신아카데미, 1978, 2쪽.
- 11) “壇君이 以天神爲信仰之對象, 而設壇隨行祭祀矣.” 이능화, 위의 책, 2쪽.

4. '무속'에 대한 이해

이능화가 찾아낸 '한국종교'의 원류—그것을 신교라고 부르든 아니든 간에—는 '무속'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신교와 무속을 동일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히 이능화는 '신교'를 단군과의 연관성 속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무속'은 그와는 달리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종교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능화는 역사적인 맥락을 언급할 때는 '신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 신교의 구체적 내용이나 현상은 '무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무속고』는 조선민족에 고초시대부터 신교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朝鮮民族, 古初時代 卽有神市, 爲其教門). 그리고 이 신교의 제사장이 무였음을 언급하면서(巫者古代神教主祭之人)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기사까지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¹²⁾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는 것을 더 크고 보편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신교를 한국의 특수한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능화의 관심은 신교에서 무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종교'에 대한 관심이 신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고 또 신교를 통해 '한국종교'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었다면 『조선무속고』에 이르러서는 그 관심이 신교를 넘어 '무속'으로 확고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종교'의 원류이자 그 잔류로 '무속'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유 종교인 신교의 현재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불교통사』 하편에 나온 것처럼 신교라는 용어는 대종교를 통해서 이능화에게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교라는 용어

12)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능화가 『조선무속고』에서 사용한 '신교'가 과연 '단군신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신교라는 용어가 이 시기에는 특히 단군과 관련된 한민족 고유의 고대 종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주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고대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종교'를 폭넓게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는 당시 민족주의적 사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적어도 『조선불교통사』에서는 대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무속고』가 쓰일 1927년경에는 이미 일제의 탄압으로 대종교의 교세가 매우 축소되었다. 신교의 현실적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국내에서 대종교가 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능화가 찾아낸 것이 무속이었을 수도 있다. ‘한국종교’에 대한 공식적 고찰을 아우르는 이능화의 범주설정 속에서 한국 고대 신교의 현실적 담지자로 무속이 설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신교에 대한 관심에서 무속에 대한 관심으로 강조점이 바뀜으로써 민족적 색채가 많이 탈락되고 보다 보편적인 학문의 영역—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많이 후퇴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조선무속고』를 기점으로 ‘한국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해석은 무속을 중심으로 나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종교사』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中央佛敎專門學校에서 강의한 것으로 1931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¹³⁾ 이 『조선종교사』는 ‘조선무속의 원류’라는 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며, 총 12장에 걸쳐 조선무속에 대한 역사적, 현상적 고찰이 이어진다. 이는 이능화가 ‘조선종교사’의 시작을 아예 무속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무속고』에서는 그래도 단군신교와 무속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으나 이 『조선종교사』에서는 아예 단군신교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느 민족에나 보편적으로 보이는 고초 시대의 제사장을 무속으로 설명하고 있으며¹⁴⁾ 이제 무속은 ‘한국종교’의 원류일 뿐 아니라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현상으로 이

13) 심우성, 「이능화론」,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1, 332쪽.

14) “世界各國의 古初에는 반드시 天의 祭祀人의 生命 等に 關한 職事를 主掌한 사람이 있어 社會의 師長 地位로 最高階級에 在하였나니 朝鮮古代의 巫祝(中國亦全) 日本의 神官 滿洲의 薩滿 印度의 婆羅門 埃及의 祭司長 等은 名義는 비록 다르나 그 實質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다.” 이능화, 『조선종교사』(영인본), 민속원, 2002, 1쪽.

해되는 것이다. '한국종교'와 '한국종교'의 원류에 대한 이능화의 이해는 이제 무속에 대한 이해로 대체된다.

5. 결 론

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능화는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 속에서 종교에 대한 이능화의 범주는 계속 변화하였으며 강조점도 역시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한국종교'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백교회통』을 통해 본 이능화의 초기 저술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 일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아직 '한국종교'라는 범주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한국종교'보다는 보편적인 '종교'의 범주가 보다 더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불교통사』 이후로 이능화의 저술에서 '한국종교'의 범주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처음에는 특히 신교와 관련지어 민족주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종교'의 범주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능화에게는 역사적인 시각 외에 공시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적인 시각은 '한국종교'를 보는데 있어 신교에만 시야를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속'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능화가 이렇게 '무속'으로 자신의 시야를 넓힌 것은 '신교'와 관련된 기존의 담론들—이능화 자신의 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공유되던 담론들—을 넘어 '한국종교'에 대한 이능화 자신의 독자적 해석으로 나아갔음을 말해 준다. 물론 이렇게 '무속'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범주설정 운운하는 학문적 변화과정보다는, 학문 외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이능화가 자신의 학문적 변화과정 속에서, 특히 '한국종교'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속'에 도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능화의 학문적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것은 이능화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한국종교'라는 범주, 그리고 '한국종교'의 원류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능화의 저작들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차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청사진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

'Religion,' 'Korean Religion,' and 'Mu-sok'

- Lee Nung-Hwa's Understanding of 'Korean Religion' -

Cho, Nam-Wook

Lee Nung-Hwa is called the founder of religious studies in Korea. But there is a gap between his religious studies and our contemporary own. It results from the fact that we failed to succeed to his studies and to develop specific Korean religious studies. Since Korean War, contemporary religious studies originated from western academic societies have been so powerful in Korea that Lee Nung-Hwa's works have been marginalized. But he who wants to study 'the Korean Religion' cannot help ignoring Lee Nung-Hwa's works, since he can find a new insight in the old Lee Nung-Hwa's works. By tracing how he used some categories like 'religion(s),' 'Sin-gyo,' 'Mu-sok,' and so on, we can understand the precedent thoughts about Korean religion. And this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point where we start our own studies on Korean religion.

Unfortunately, Lee Nung-Hwa has never been clear on his methodology, and has never left a kind of autobibliography from which we can have some hints to rearrange his works. From another point of view, however, this obscurity fortunately gives us not only an open field where we can interpret his works freely and but also an important task that we must read his works critically with our own methodological view. Reader of Lee

Nung-Hwa's works must be an active one, not a passive one. In this article, I labored to find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Lee Nung-Hwa's thought on Korean religion by pursuing the changes of categories which he used.

In short, Lee Nung-Hwa's first focus had been on 'religion(s),' especially 'world religions' reviewed from his Buddhist point of view, which was altered into 'Sin-gyo' that had been used by his contemporary scholars to represent a Korean ancient religion in relation to 'Dan-gun' Myths. At last, he focused his attention on 'Mu-sok', a Korean form of Shamanism, in which he thought that we could find some survivals of ancient 'Sin-gyo.' It can be added that his nationalistic point of view which had been preserved in his precedent works by implying the relation between 'Sin-gyo' and 'Mu-sok' was eliminated from his 1930's works, in which he focused 'Mu-sok' only as a Korean form of universal Shamanism.

Lee Nung-Hwa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first scholars who pointed the importance of 'Mu-sok' in studies on Korean religion. But he himself used many categories about Korean religion, in which 'Mu-sok' was contained, and altered that catego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s thought. By active reading of his works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his works we may find a new insight for our own studies.